

연구노트

사례연구방법을 통한 과학적 추론*

김 성 훈

이 논문은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의 사례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사례연구방법이 과학적 추론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방법의 여러 유형과 특징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연구방법들이 과학적 추론의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검토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기존의 사례연구들의 방법론적 오류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연구방법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연구방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방법이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인식한 가운데 연구논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크리스트의 구성을 통해 연구설계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1. 서론

학술논문이 방법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진단하고 논문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려할 때 평가 및 판단의 기준으로 흔히 이론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신뢰도(reliability) 및 타당도(validity)를 고려한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논문의 설계단계와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논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며 이론형성의 길을 모색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논문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다. 연구자가 아무리 그럴 듯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연구질문을 발

김성훈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kss6606@hotmail.
com

* 이 논문은 2000년 11월 《서울행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견하였다 하더라도 연구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연구는 근본적인 하자를 내포할 수밖에 없고 연구결과는 현실 적합성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연구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를 범주화해 보면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연구방법¹⁾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계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방법은 변수의 측정이 용이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까지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때로는 무분별하게 통용되어 왔다. 이에 반해 비계량적 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은 정교하지 못한 연구설계,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의 복잡성,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연구방법의 선택과정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비계량적 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이 기피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이들 연구방법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몰이해와 이러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온 기존 연구들이 안고 있는 방법론 적용상의 오류²⁾에서 찾을 수 있다. 지면상의 이유로 이들 두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다룰 수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사례연구방법에만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몇몇 의미 있는 해결책을 발견·토론해 보기로 한다.

사례연구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기존 문헌 및 논문들은 사례연구방법을 기술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단순 도식화하여 이해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례연구방법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며, 유형에 따라서는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며 새로운 이론형성을 자극하는 과학적 추론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그 동안 사례연구방법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되어 온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도 연구

자가 얼마나 자신의 연구를 정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사례연구방법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발견·설명함으로써 사례연구방법에 대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려 할 때, 연구과정의 매 단계마다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구성하여 제시하고,³⁾ 이를 통해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대표적 사례연구들을 분석,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사례연구가 가지는 방법론적인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몇몇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한 논문들은 1996년(30권 2호)부터 1999년(33권 3호)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총 208편의 논문 중 34편의 사례연구⁴⁾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사례연구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왜 그 동안 사례연구방법이 연구방법의 선택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보고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하나의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과학적 추론과 사례연구방법

사례연구방법은 그 동안 사회과학 분야에서 단순하고 기술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연구방법의 선택과정에서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례연구방법을 통해서만 인과적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례연구가 이론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연구방법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편향된 시각이 상당부분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단

순이해, 또는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사례연구들이 내포한 방법론상의 오류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론형성을 위한 과학적 추론과정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사례연구의 다양한 유형들이 과학적 추론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사례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이론형성과 과학적 추론 : 과학적 추론의 기본형태

과학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필요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론적 진술이 경험적 관찰을 통해 테스트되는 과학적 추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제시된 이론 및 진술들이 어떻게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며 자신의 설명력을 더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⁵⁾ 이해를 돕기 위해 뒤르껴(Durkheim)의 '이기적 자살론'⁶⁾이 하나의 이론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부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모형 I : 하나의 경험진술 관찰을 통한 이론검증

이론적 진술과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경험적 진술을 설정한 다음, 경험적 진술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험적 진술의 관찰 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진술이 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 진술을 A라하고 A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진술을 B라 하면, 다음의 도식(I), (II)와 같은 두 가지의 간단한 논리적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도식(I)	도식(II)	도식(III)	도식(IV)
$A \Rightarrow B$	$A \Rightarrow B$	$A \Rightarrow B_1, B_2, B_3$	$A \Rightarrow B_1, B_2, B_3$
<u>B false</u>	<u>B true</u>	<u>B_1, B_2, B_3 similar</u>	<u>B_1, B_2, B_3 different</u>
A false	A more credible	A substantially more credible	A much more credible

도식(I)은 이론적 진술 A를 검증하기 위해 도출된 경험적 진술 B가 검증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로, 이 경우 이론적 진술 A도 거짓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이를 뒤르겐의 추론방식에 비추어 보면, “개인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기적 자살율은 높아질 것이다”는 이론적 진술과 이를 관찰하기 위해 도출해낸 “프랑스에서 신교도는 구교도보다 자살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경험적 진술이 있을 때, 경험적 진술을 관찰한 결과 개인주의의 정도가 높은 신교도의 자살율이 그렇지 않은 구교도의 자살율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론적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된다.

이에 반해 도식(II)는 이론적 진술 A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진술 B가 관찰에 의해 참으로 판명된 경우로, 이 경우 이론적 진술 A도 B의 검증결과에 기초하여 신뢰할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단 하나의 경험적 진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론적 진술 A에 대해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경험적 진술 B의 검증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신교도가 구교도보다 자살율이 높은 것은 신교도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고, 신교도의 교리에서 자살이 가지는 종교적 죄에 대해 강조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모형(I)은 이론적 진술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형태의 검증방법(추론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형 II : 다양한 관찰진술을 통한 이론검증

하나의 이론적 진술이 지지되거나 기각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는 다양한 경험진술들이 도출되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앞의 모형 (I)과 비교해 볼 때, 모형(II)는 이론진술을 검증하기 위한 유사한 경험적 진술(관찰언명)들의 수를 늘려 검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뒤르껌은 '이기적 자살론'에서 "프랑스에서 신교도인은 구교도인보다 자살율이 높을 것이다"(B)라는 경험진술을 도출한 다음, 다시 "신교를 수용하는 국가들은 카톨릭 국가들보다 높은 자살율을 가질 것이고 (B₁), 독일의 신교도 지역은 카톨릭 지역보다 자살율이 높을 것이다 (B₂). 그리고 프랑스에서 신교도인은 구교도인보다 높은 자살율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B₃)"라는 세 가지 세부가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검증하고 있다.

위의 도식(III)과 같이 이론적 진술에서 도출된 B₁, B₂, B₃의 세 가지 경험진술들이 관찰결과 모두 참으로 판명된다면 원래의 이론적 주장이 도식(II)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검증된 셈이고 설명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즉 도식(III)은 한 이론이 유사한 여러 가지의 관찰언명을 통해 검증되고 지지될 때, 그 이론적 진술은 더 큰 설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도식(III)과 (IV)의 차이는 도식(III)의 관찰진술 B₁, B₂, B₃가 모두 하나의 변수에서 도출되었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반면, 도식(IV)의 관찰진술 B₁, B₂, B₃는 각기 다른 변수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식(III)의 B₁, B₂, B₃가 개인주의의 정도를 모두 종교적인 특성에서만 추출하여 검증하고 있는 것이라면, 도식(IV)의 B₁, B₂, B₃는 종교적 특성 외에 도시화정도, 전문화정도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개인주의의 정도를 관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주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을 관찰진술로 설정하고 검증했는데도 모두 참으로 판명된다면, 연구자의 이론진술 A는 도식(III)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지되고 그만큼 더 많은 설명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모형 III : 이론의 강력한 검증을 위한 기준

한 이론의 결과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상이한 검증들이 단일하면서 분리된 검증보다 더 좋다는 결론이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경쟁적 대안이론이나 경쟁가설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조사 및 검증에 착수하기 전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해주는 많은 경쟁이론이나 가설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들 이론이나 가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잘 정리된 것들이 있는 반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제기되지 못한 이론이나 가설들도 있을 수 있다. 다음의 상황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식(V) : 하나의 경험진술 관찰을 통한 경쟁가설의 제거

A or (C, D, E, ..., Q, R, S)

$A \Rightarrow B_1$

(C, E, ..., Q, S, ...) $\Rightarrow B_1$

D, R $\Rightarrow \text{not-}B_1$

B_1 true

D, R false (by classical logic)

A or (C, E, ..., Q, S, ...)

A more credible

(but also C, E, ..., Q, S ... more credible)

위의 도식(V)는 연구자가 제기한 이론적 진술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이나 가설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즉, 이론적 진술 A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론인 C, D, E, ..., Q, R, S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자가 제기한 개인주의의 정도(A) 외에 날씨(C)나 소득수준(D), 스트레스(R) 등의 가설 및 이론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들 중에서 소득수준(D), 스트레스(R)를

경험적 진술 B_1 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들의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연구자가 제시한 개인주의의 정도(A)는 자살율을 설명하는 원인변수로서 그만큼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모형은 경쟁이론이나 가설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감으로써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의 설명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의할 것은 경쟁이론인 D, R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 E, ... Q, S, ... 등은 여전히 경쟁이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도식(VI): 복수의 경험진술관찰을
통한 경쟁가설의 제거

도식(VII): 복수의 다양한 경험진술
관찰을 통한 경쟁가설의 제거

$A \Rightarrow B_1, B_2$
 B_1, B_2 similar
 $C, R \Rightarrow \text{not-}B_1$
 $C, S \Rightarrow \text{not-}B_2$
 B_1, B_2 true

$A \Rightarrow B_1, B_2$
 B_1, B_2 very different
 $C, R \Rightarrow \text{not-}B_1$
 $D, E \Rightarrow \text{not-}B_2$
 B_1, B_2 true

C, R, S false
 A or (D, E, F, ..., Q, T, ...)
 A substantially more credible

C, R, D, E false
 A or (F, ..., Q, S, T, ...)
 A much more credible

한편, 위의 추론모형 역시 경쟁하는 가설이나 이론들을 제거함으로써 연구자가 제기한 이론진술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앞의 모형과 다른 점은 이론진술 A를 검증하기 위한 관찰진술의 수를 더욱 늘리고 다양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림의 왼쪽모형은 유사한 관찰진술을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였을 때의 경우이고, 오른쪽 모형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론진술 A를 검증하기 위해 복수의 상이한 관찰진술들을 사용하면서 경쟁가설을 제거해나가는 방법이다.

(4) 모형 IV : 결정적인 경쟁가설을 제거하는 방법

추론방법의 마지막 모형이면서 이론을 검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제기된 이론과 가장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이나 가설을 찾아 그것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연구자의 가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다음의 모형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도식(VIII) : 결정적인 경쟁가설의 제거

A or C or (D, E, ...)
 A ⇒ Bi
 (D, E, ...) unlikely
 C ⇒ not-Bi
Bi true

 C false
 A or(D, E, ...) [(D, E, ...) unlikely]
 A very much more credible

위의 모형에서 C는 A와 가장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이론 또는 가설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D, E는 C에 비해 상대적으로 A와 덜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이나 가설을 나타낸다. 서로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A와 C에 대해 각각 Bi라는 관찰진술을 도출하여 검증하였을 때, Bi가 A에는 타당하고 C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쟁가설 C를 제거함으로써 A가 가지게 되는 설명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뒤르켐은 상업화수준, 도시화수준,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개인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개인주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자살율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가장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유태인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완전히 반박될 수 있다. 즉 유태인의 경우 뒤르켐이 개인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들이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자살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상업화나

교육수준, 도시화의 수준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아닌 연대성의 약화로 인한 개인주의가 자살율과 더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적 추론은 하나의 관찰진술에 대한 검증을 통한 이론검증방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자가 제기한 이론진술과 가장 강력한 관계에 있는 경쟁가설을 제거함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례연구방법은 이러한 과학적 추론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사례연구의 여러 유형들과 특징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유형이 과학적 추론의 과정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사례연구방법의 역할

연구논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했다고 하면 통상 해석적 또는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단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방식의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의 가장 초보적인 한 유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연구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사례연구방법에 관한 논문들을 통해 다양한 사례연구방법들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로 특징을 제시한 다음 각각의 유형들이 앞서 제시한 과학적 추론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례연구방법의 유형과 특징

사례연구방법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유형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①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방법, ② 해석적 사례연구방법, ③ 가설창출적 사례연구방법, ④ 이론제한 및 이론확증적 사례연구방법, ⑤ 일탈적 사례

연구방법의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첫째, 개별기술적 사례연구(*Configurative-idiographic Case Study*) 방법은 사례해석이 객관적인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자의 직관이나 주관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⁸⁾ 사례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거나 사례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데 치중하며 사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연구의 초점이 주어진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화나 법칙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의미에서의 설명이나 예측은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론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Lijphart(1971)는 개별기술적 사례연구를 반이론적 사례연구(*Atheoretical Case Study*)라고 명명한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사례연구 유형이지만 정치학 등 사회과학 연구에서 그 동안 많이 활용되어 온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귀납적 결론 도출방식을 지향하며 이론형성을 위한 과학적 추론의 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해석적 사례연구방법 역시 이론 성립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례 자체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는 연구로서 일반화와는 거리가 먼 비교적 단순한 사례연구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특정 현상의 원인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론이나 법칙들에 근거해서 설명하려 한다(Lijphart, 1971:692)는 점에서 앞의 개별기술적 사례연구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특정 사례 및 현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보편적인 법칙들에 근거해서 특정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⁹⁾

게다가 해석적 사례연구(*Interpretive Case Study*)를 일반법칙이나 이론을 특정사례에 단지 수동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사례에 대해 이론을 적용시켰을 때 사례가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론의 설명력은 그만큼 커질

것이며 그 이론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론들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사례에 대해 이론을 적용한 결과 이론이 사례를 설명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이론과 경쟁관계에 있는 새로운 이론의 탄생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해석적 사례연구방법 내에서도 이론을 단순 적용시키는 사례연구에서부터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경험진술들을 도출하고 그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변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석적 사례연구가 이론 형성을 위한 과학적 추론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냐의 문제는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유형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설창출적 사례연구(*Hypothesis-generating Case Study*) 방법이란 처음에는 다소 모호한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자신의 가설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가설을 구체화시켜나가는 사례연구방법이다(Lijphart, 1971:692). 반복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창출된 가설이 수정되고 보완될 경우 가설이 구체화되어 가설의 일반화나 이론적 의미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방법의 장점은 아직 이론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서 새로운 이론적 일반화를 시도하도록 자극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때 선택된 사례가 아직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진행되는 실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연구는 새로운 이론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이론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가설창출적 사례연구방법과는 달리 기존의 가설이나 일반화에 내재된 명제(*proposition*) 들을 중요한 사례의 관찰을 통해 검증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례연구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가설이나 이론 명제들의 설명력이 확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설명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이론확증적(*theory confirming*) 사례연구방법¹⁰⁾이라 하고 후자를 이론제한적(*theory infirming*) 사례연구방법¹¹⁾이라 한다. 이론확증적 사례연구방법이 하나의 사례연구를 통

해 기존 가설이나 이론의 설명력을 더욱 공고히 해 가는 것이라면, 이론제한적 사례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가설 및 이론 명제의 설명력을 역으로 제거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방법은 이론명제나 진술을 사전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이론진술로부터 경험진술을 도출하여 검증함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 추론의 일반적 과정과 가장 부합하는 사례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Lijphart(1971: 692)는 이러한 연구의 사례유형을 앞서 과학적 추론의 기본형태에서 제시된 모형 IV(*Crucial Experiment*)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일탈적 사례연구(*Deviant Case Study*) 방법이란 기존의 가설이나 일반화 명제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난 단일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변수들에 대해 재정의(*redefinition*)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론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일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일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원래의 이론 명제나 가설의 설명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으며 보다 수정된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크게 보강할 수도 있다. 일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수정된 이론 명제나 가설은 수정되기 전의 가설 및 이론 명제에 비해 타당도도 높일 수 있다. 일탈적 사례연구방법은 기존의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 사례의 수가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적절하게 선정된 단 하나의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이론을 검증하는 데 강력하게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검증 사례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사례연구 유형도 앞서 살펴본 과학적 추론의 여러 형태 중 경쟁적 가설을 제거하는 방법인 모형 IV와 매우 흡사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이론형성과 사례연구

위에서 사례연구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한 다음 유형별 특징과 이론형성과정에서 각 유형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개별기술적 사례연구나 해석적 사례연구방법처럼 사례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이론형성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단순 유형의 사례연구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례를 통해 새로운 가설을 창출하고 수정하며 보완하는 사례연구방법에서부터, 기존의 이론명제나 가설을 특정한 사례를 통해 검증 또는 반증하는 단계의 사례연구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이론형성과 이론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방법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론에 대한 공헌의 견지에서 볼 때 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례연구방법은 가설창출적 사례연구방법과 반증 또는 일탈적 사례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의 사례연구방법은 이론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가설창출적 사례연구방법은 새로운 가설을 창출하는 데 주로 기여하는 반면, 일탈적 사례연구는 현존하는 가설이나 이론들을 재정의 또는 더욱 강화시켜줌으로써 이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론을 강력하게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일탈적 사례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사례연구방법의 분석력도 비교연구의 분석력 못지 않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려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양한 유형의 사례연구방법이 존재한다는 점과 각 사례연구 유형별로 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에 들어가야만 사례연구방법이 단순하고 기술적이며 이론형성과 무관하다는 일반적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오류와 문제점 분석

어느 연구방법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갖는 것처럼 사례연구방법 역시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약점도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사례연구방법이 이론형성을 위한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가지는 단점을 들추어내기보다 사례연구방법이 이론형성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들을 발견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기존의 사례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방법론적 해태나 오류를 지적한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한국 행정학보에 게재된 몇몇 사례연구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기존 사례연구들의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성은 이선우(2000:80~116)의 “행정학 분야의 비계량적 연구에 대한 소고”를 주로 참조하였다.¹³⁾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체크리스트대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동안 사례연구방법의 결함으로 지적되어 온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기존 사례연구들에 대한 진단 및 문제점 분석은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선정의 문제, 연구질문의 제기 및 가설설정의 문제, 연구방법의 선택, 자료수집의 문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관한 문제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표 1
 사례연구의 진단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적용 단계	체 크 리 스톱
사례 선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사례가 연구목적이나 질문에 적합한 것인가? 즉 연구목적에 비추어볼 때 선정된 사례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표본의 대표성, 신뢰도, 타당도와 관련하여 사례를 선정한 이유를 정당하게 밝히고 있는가? 이론형성목적의 사례연구인가 단순사례연구인가? ◦ 선정된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접근이 용이한 것인가? 선정된 사례를 연구자가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연구 질문의 제기 및 가설 설정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분야와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연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누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은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오류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선행연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연구질문이 구성되었는가? ◦ 연구질문은 인과적인 연구를 위한 형태로 구성되었는가? ◦ 큰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질문들로 세분화하고, 작은 질문들을 구성할 때 큰 질문과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고려했는가? ◦ 연구질문에 부합되게 이론적 틀을 적절하게 구성했는가? ◦ 연구질문이나 이론적 틀에 사용된 주요 개념이나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구목적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 자신의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있는가?
연구 방법 선택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및 질문에 비추어볼 때 연구방법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연구질문과 연구방법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보는가? ◦ 많은 연구방법들 중 사례연구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나 장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가? ◦ 여러 가지 사례연구방법들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자신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했는가? ◦ 주된 연구방법 외에 여러 가지 연구방법론을 병행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표 1
계 속

적용 단계	체 크 리 스톱
자료 수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자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풍부하게 수집하였는가? 연구목적 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는가? ◦ 자료수집시 객관성을 고려하였는가?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비해 변수별로 적절하게 분류 및 요약되었 는가? 분류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가? ◦ 자료의 해석은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자료해석이 너무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가? 연구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왜곡된 해석을 하지는 않았는가? ◦ 분석결과를 모형화 내지 분석도로 그려내면서 객관화하려고 노력했 는가? ◦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1) 사례선정의 문제

사례연구의 의의는 선택한 사례의 적절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사회현상이 사례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 모두가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즉 연구로 서의 가치를 갖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례가 독특 (unique) 하거나, 희귀 (rare) 하거나, 또는 극적 (dramatic) 이어야 한다 (이선우, 2000:82; Yin, 1989:1-50). 사례가 독특하거나 희귀하거나 극적이여야 한다는 것은 그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할만한 중요성을 가진 사례이거나 단일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기존 의 이론 및 가설을 확증 또는 반증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그러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이론 및 가설이 가지는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데 보탬이 되거나 그것 이 가지는 설명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공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한가지 사항은 사례를 선정한 정당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연구대상 표본의 대표성을 입증하는 문제이다. 자신의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왜 그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독자들로부터 사례선정에 관한 정당성(plausibility)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되고 있는 사례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들의 대부분이 이론적 의미를 함축할 만큼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편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사례가 선택되어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도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보다 처방책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⁴⁾

1996년(30권 2호)부터 1999년(33권 3호)까지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34편의 사례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거나 이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7편¹⁵⁾에 불과했다. 기존 연구나 이론을 통해 분석틀을 구성한 다음 분석틀에 비추어 사례를 해석하는 해석적 사례연구는 14편¹⁶⁾이고, 나머지 13편¹⁷⁾의 논문은 이론적 틀이나 분석모형의 정립 없이 사례연구를 통해 처방책이나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대상이 되는 적정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많은 사례들 중 그 사례가 왜 연구대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이 생략된 채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34편의 논문 중 8편¹⁸⁾만이 사례선정 이유를 제시했을 뿐 나머지 26편의 사례연구 논문은 사례선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질문의 제기 및 가설설정의 문제

사례연구방법에서는 “계량적인 연구방법에서처럼 이론으로부터 추론하여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가설(*if-then hypothesis*)을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다”(이선우, 2000:81). 그러나 일반적인 비계량연구와는 달리 사례연구를 위한 질문은 기술적(*descriptive*)이나, 설명적(*explanatory*)이나, 또는 탐구적(*exploratory*)이나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진다. 기술적이거나 설명적인 것은 특정한 형식의 구애가 없으나 탐구적인 것은 왜(*why*) 또는 어떻게(*how*)라는 형식으로 시작한다(Yin, 1989; Gregor, 1969). 그 이유는 제시한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된 한국행정학보의 논문은 어떤 형식의 사례연구인가? 분석대상에 포함된 34개의 사례연구 중 단지 7편만이 인과적인 설명을 위한 탐구적인 형식으로 연구질문을 설계하고 있다. 사공영호(1998 여름), 윤성식(1997 여름), 윤건수(1997 여름), 소영진(1999 봄), 송위진(1998 봄, 1999 봄), 김동욱·이원희(1998 여름)의 연구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사공영호(1998 여름)와 윤성식(1997 여름)의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공영호는 그의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1998 여름)”에서 일반 규제포획이론에서의 가정이나 전제조건¹⁹⁾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가부장적 문화권에 있는 한국에서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사이에 규제포획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과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즉 “뇌물이나 유착현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익집단에 대하여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가 어떻게 피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익집단이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의 포획능력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익집단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탐색적인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²⁰⁾ 한편 윤성식(1997)은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선진 각국의 예산개혁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있다. 그는 지역, 정부수준, 조직의 규모와 성격, 환경 등에 의해 초기 조건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예산개혁과정에서 공통된 요소들이 관찰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 또한 인과적이고 탐구적인 질문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대상 논문 중 나머지 27편은 처음부터 질문이 없이 사례연구를 시작하거나 사례를 단지 기술 또는 서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 틀에 따라서 연구를 위한 가설(*hypothesis*) 및 가정(*proposition*)을 만들거나 그 연구질문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작은 연구질문들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위해 제시되는 개념들, 즉 변수들에 대한 개념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선우, 2000:84).

그런데 34편의 분석대상 논문 중 이론적 틀을 제시한 논문은 모두 21편²¹⁾이었으나, 그 중에서 이론적 틀을 통해 가설이나 가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자신의 가설이나 가정을 수정하면서 구체화시키는 형태의 논문은 송위진(1998 봄, 1999 봄), 윤건수(1997 여름), 소영진(1999 봄), 김동욱(1998 여름), 윤성식(1997 여름), 사공영호(1998 여름)의 논문 7편에 불과했다. 게다가 연구질문의 구성시 큰 연구질문과 그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질문을 만들고 큰 질문과 세부 질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연구설계를 수행한 연구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이론적 틀은 제시되었으나 이론적 틀을 실제 분석의 지침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논문들, 즉 논리 전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논문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물론 반드시 이론적 틀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연구질

문만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한 뒤 그로부터 새로운 발견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논문들은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것이 아닌 처음부터 특정한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고 나서 분석을 수행하는 선행이론 의존적 연구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설계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 타당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분석들에서 제시한 주요 용어에 대해 개념정의 및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고 사례연구에 착수하는 논문들은 34편 중 13편²²⁾이었고, 나머지 21편은 개념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사례연구에 착수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 연구방법 선택의 문제

우선 연구자는 자신이 제기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Marshall 외, 1989:45). 즉,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고, 연구질문과 선택된 연구방법간의 상관성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도 유리하다(이선우, 2000:8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으로 고려한 논문 중에서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사례연구방법을 입증방법으로 선택한 이유와 장점, 자신의 연구질문과 연구방법간의 상관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시작하는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천연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국행정학보가 할애하는 지면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방법의 선택에 이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연구대상표본의 선택이다. 조사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는 연구대상표본이 되는 조직이나 집단 또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Marshall 외, 1989:54). 가장 이상적인 연구대상표본은 접근이 용이한 조직으로 연구와 밀접히 관련된 과정(*processes*), 직원(*people*), 제도(*systems*), 업무(*programs*),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interaction*)를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필요한 기간만큼 계속해서 언제든지 연구를 지속할 수 있고 자료의 질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표본의 선택이 이상적일수록 연구내용 및 결과도 이상적일 것이며, 연구의 일반화는 그만큼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표본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표본의 선택이 여의치 않거나, 접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표본선택이 잘못되었거나 그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질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본으로 선택된 조직의 분위기나 위치, 표본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는 장소가 연구자에게 불편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며, 접근허락을 얻기 위하여 표본대상집단에 연구자의 의도를 모두 밝힌다면 연구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Marshall 외, 1989:54~58).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대상의 논문들을 진단할 때, 앞의 사례선정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34편의 논문 중 8편의 글만이 표본선정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26편은 자신이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표본이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논문들은 표본 선정시 대표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표본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의 대표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4) 자료수집의 문제

자료는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사례연구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단순한 통계자료만이 아니라 각종 연구자료

(documentation), 정부보고서 (archival records), 면담자료, 참여관찰자료, 직접관찰자료, 부산물 (physical artifacts)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방법의 도입에 의한 입체적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담자료는 피면담자의 증언이 그대로 왜곡됨이 없이 논문에 증거자료로 제시되어야 하고, 현장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현장노트 (fieldnote)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분석대상 논문 34편 중 자료수집방법을 밝히면서 현지조사, 내용분석, 설문조사, 기존 통계자료 활용 등 다양한 원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와 관련된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 논문은 6편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사례연구를 피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료수집을 풍부한 원천에서 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허만형·정윤수(1999), 김상목·이성복(1996), 한상연(1996), 박세정(1998), 소영진(1999), 윤건수(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세정(1998)은 지방자치단체의 TQM 도입경위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자료수집의 원천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학술지, 행정관련 비전문잡지 등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방문면담, 전화면담 등 각종 자료수집방법 등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복지사업소 복지남용 사례를 분석하는 허만형·정윤수(1999)의 논문에서는 자료수집방법으로 내용분석과 면담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목·이성복(1996)은 정부조직개편과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료수집방법으로 직접적인 참여관찰과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5)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관한 문제

사례연구방법도 계량적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료간의 상호연결을 위하여 수집된 원자료(raw data)의 코딩작업을 시도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변수들간의 논리적 연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 때, 자기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해도 되고 기존의 비계량적 연구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도 좋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이 직접 수집한 원자료를 코딩작업을 거쳐 요약 분류하거나, 요약된 자료들간의 논리적 연결을 시도하는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문은 한국행정학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하더라도 의미있는 발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 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례연구방법이 가지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의 의식적으로 진행될 때에만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례연구 방법에서 대체로 사용하는 방법은 유형발견(*pattern-matching*)을 통한 설명모형개발(*explanation-building*)이며, 연구주제에 따라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도 가능하다(Yin, 1989). 즉, 모형개발은 가장 기본적인 사례연구방법의 자료분석방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설명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연구의 성격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것이라면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연구하는 사례를 설명하여 주는 변수들을 참여관찰자료(*participant-observation*), 직접관찰자료(*direct-observation*), 면담자료, 통계자료, 기타 각종자료들(예: *documentations*, *archival records*)을 가지고 분석도(分析圖)를 그린다. 그런 후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최종 분석도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도의 완성 및 패턴 발견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례연구를 좀 더 객관화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일반화나 이론형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그만큼 연구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논문 34

편 중 유형이나 패턴의 발견을 통해 객관화하려고 시도하는 논문은 7 편이었으나 분석도를 그리면서 치밀하게 논문을 완성하는 예는 발견 하기 어려웠다.

표 2
체크리스트를 통한
분석결과 요약

적용단계	분석결과 (논문수)	
	잘되고 있다	잘안되고 있다
□ 사례선정단계 • 사례선정이유 제시 • 이론형성/해석적 사례연구/기술적	7 7/14/13	27 -
□ 연구질문/가설설정단계 • 인과적 질문의 구성 • 연구질문의 세분화 및 질문간 논리적 연 계 • 이론적 틀의 구성 • 연구가설의 구성 및 수정 • 변수와 개념들의 정의	7 0 21 7 13	27 34 13 27 21
□ 연구방법의 선택단계 • 연구방법선택 이유 및 장점 제시	8	26
□ 자료수집단계 • 자료수집방법제시/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수집	6	28
□ 자료의 분석/해석단계 • 수집된 자료의 요약 분류 • 분류된 자료의 논리적 연결 • 분석틀에 기초한 논리적 자료의 해석 • 분석결과에 객관화 작업(분석도/모형화 /패턴발견 등)	- - - 7	- - - 2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사례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있어 왔다고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사례연구방법이 단일사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이며 이론 형성을 위한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례연구방법은 표본의 대표성이나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사례연구방법이 연구방법의 선택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오해의 근원이 일차적으로는 사례연구방법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였다. 게다가 이론형성을 위한 과학적 추론과정에서 사례연구방법의 각 유형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한편 사례연구방법으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오해와 관련하여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기존의 사례연구들이 그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기존의 사례연구들이 사례연구방법의 여러 가지 유형 중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사례연구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이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고려한 논문들은 대체로 이론형성과는 무관하게 사례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사례에 대한 이해 및 이를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는 형태의 개별기술적 사례연구이거나 기존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근거하여 사례를 해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설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이론적 가정이나 명제들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발전된 사례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례연구방법의 여러 유형들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각각의 유형들이 과학적 추론의 각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사례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연구자에게 요구된 것이다. 둘째는 객관성,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것을 사례연구방법의 원천적 결함으로 돌리기보다는 연구자가 사례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정밀하게 연구설계를 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들이 전제될 때, 사례연구방법은 비과학적이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연구방법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오늘날 사례연구방법도 계량적 연구방법 또는 비계량적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분야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Yin, 1989). 사례연구방법을 종종 비계량적 연구방법의 전형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례연구방법은 여타 연구방법과 자유롭게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비계량적 자료는 물론 통계 수치 등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밀히 보면 계량적 연구방법과 비계량적 연구방법의 경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실제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몇몇 사례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연구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나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 연구방법의 선택과정, 자료수집과정, 수집된 자료의 요약기술 및 분석과정 등에서 방법론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 3)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진단하기 위해 구성한 체크리스트는 이선우(2000:80~116)의 “행정학 분야의 비계량적 연구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 4) 1999년 제 30권 2호부터 1999년 제 33권 3호까지 실린 총 208편(서평 제외)의 논문 중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34편(16%)에 불과했다. 물론 연구자가 연구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데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례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을 구분해 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분석대상으로 고려한 논문들은 전

형적으로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Stinchcombe(1968)의 제2장 부분을 주로 참조하였다.
- 6) 과학적 추론(*scientific inference*)은 한 범주의 현상이 다른 범주의 현상과 일정 정도의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론적 진술(*theoretical statements*)로부터 시작된다. 사회과학에서 이와 같은 인과적 추론방식을 통해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예가 뒤르켐의 '이기적 자살론'이다. 뒤르켐은 그의 '이기적 자살론'에서 "어떤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자살률은 높을 것이다"라는 이론적 진술을 제시한 다음 개인주의의 정도와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다양한 배경하에서 검증하였다. 뒤르켐의 '이기적 자살론'의 전개과정은 하나의 이론적 진술 또는 언명이 제기된 후 그러한 진술이 어떻게 경험적인 증거를 확보해 가면서 자신의 설명력을 넓혀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뒤르켐의 추론방식을 통해 우리는 이론적 진술의 경험적 관찰을 위해서는 이론적 진술로부터 연역적으로 경험적인 진술을 도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7) 이와 같이 사례연구방법의 유형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Harry Eckstein(1973:79~137)과 Arend Lijphart(1971:682~693)를 들 수 있다.
- 8) 개별기술적 사례연구는 분석모형이나 분석시각을 정립하지 않은 채 사례 자체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칙성이나 패턴의 발견을 통해 설명과 예측을 지향하는 과학이론의 목적에서 벗어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 9) 이러한 사례연구 유형을 Eckstein(1975:99~104)은 'Disciplined-configurative Case Study'라고 명명한다.
- 10) Eckstein(1975:118~119)은 이러한 사례연구가 기존의 가설이나 일반화를 지지해주는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Most-likely Case Study"라고 지칭한다.
- 11) Eckstein(1975:118~119)은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가 기존의 가설이나 일반화 명제의 설명력에 제한을 가하는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Least-likely Case Study"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연구도 뒷부분에 설명될 일탈적 혹은 결정적 사례연구(*deviant or crucial case study*)에 비하면 반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12) Eckstein(1975:113~123)은 이러한 사례연구유형을 "crucial case study"로 지칭한다.
- 13) 여기에서 제시된 체크리스트는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전단계인 연구설계과정에서, 그리고 사례연구가 끝난 후 연구논문을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 14) 물론 이러한 연구가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사례연구의 유형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론형성과 무관하게 사례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처방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례연구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이론형성과 관련하여 좋은 연구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형성의 관점에서 사례연구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을 뿐이다.
- 15) 윤성식(1997 여름), 윤건수(1997 여름), 송위진(1998 봄, 1999 봄), 김동욱·이원희(1998 여름), 사공영호(1998 여름), 소영진(1999 봄)의 논문들이 이와 같이 이론형성 또는 가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16) 분석대상 논문 중 이와 같이 해석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김철·고재경(1996 거

- 울), 김상목·이성복(1996 겨울), 김상목(1998 가을), 김순양(1999 가을), 김시운(1997 가을), 김정렬(1996 가을), 박명수·박홍식·전종섭(1997 여름), 사득환(1997 가을), 이상철(1999 겨울), 이상팔(1996 여름, 1999 가을), 이상팔·정병걸(1999 가을), 하혜수·임도빈·채원호·김성수(1999 여름), 허만형·정윤수(1999 봄)의 글들이다.
- 17) 이러한 논문들로는 권혁주(1998 봄), 김성수(1998 겨울), 김재훈·박광훈(1999 여름), 박광덕(1999 봄), 박세정(1998 봄), 박정수(1999 겨울), 오성호(1999 가을), 오재일(1999 여름), 이원일(1998 여름), 이영철(1999 봄), 이준원(1999 겨울), 최진혁(1999 가을), 한상연(1996 여름)의 글들을 들 수 있다.
- 18) 윤성식(1997 여름), 윤건수(1997 여름), 사공영호(1998 여름), 하혜수·임도빈·채원호·김성수(1999 여름), 소영진(1999 봄), 송위진(1998 봄, 1999 봄)의 논문들이 이에 해당된다.
- 19) 이익집단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 이익집단의 이익투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이들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이 이익집단에 의해 매수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 규제포획이론이다. 따라서 규제포획이론에서는 피규제자인 이익집단의 포획능력이 이론형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할 수 있다.
- 20) 사공영호(1998)는 이와 같이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포획현상의 원인을 '가부장적 규제포획'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동아시아국가들에게까지 이러한 가설을 일반화 하려하고 있다.
- 21) 여기에서 21편의 논문은 앞의 분석에서 제시한 인과적 추론형태의 사례연구논문 7편과 해석적 사례연구논문 14편을 합한 것이다.
- 22) 윤건수(1997), 송위진(1998, 1999), 이상철(1999), 김동욱·이원희(1998), 이상팔(1996, 1998), 이상팔·정병걸(1999), 소영진(1999), 박세정(1998), 윤성식(1997), 사공영호(1998), 허만형·정윤수(1999)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 참고 문헌

- 권혁주. 1998 봄. "영국 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 쉼터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1):27~43.
- 김동욱·이원희. 1998 여름. "정보화사업 추진체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19~37.
- 김 렬·고재경. 1996 겨울.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주민참여 형태와 정부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91~104.
- 김상목·이성복. 1996 겨울.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대한 분석: 경기도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73~89.
- 김상목. 1998 가을.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경험과 교훈." 《한국행정학보》 32(3):111~125.

- 김성수. 1998 겨울. "독일의 행정개혁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 32(4):81~97.
- 김순양. 1999 가을.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한국행정학보》 33(3):215~236.
- 김시운. 1997 가을. "산업정책과 기업이이익연합체의 역할: 전자산업과 섬유산업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1(3):73~88.
- 김재훈·박광훈. 1999 여름.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107~122.
- 김정렬. 1996 가을. "산업구조고도화와 정부·기업관계의 제도적 특성 변화: 준내부조직의 균열과 정책 네트워크의 다원화." 《한국행정학보》 30(3):153~169.
- 박광덕. 1999 봄. "지역사회복지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169~184.
- 박명수·박홍식·전중섭. 1997 여름. "국가행정의 혁신 및 확산 메커니즘의 한·미간 비교." 《한국행정학보》 31(2):77~91.
- 박세정. 1998 가을. "지방자치단체의 TQM 도입실태, 문제점, 그리고 향후방향." 《한국행정학보》 32(4):157~171.
- 박정수. 1999 겨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현금관리방안: 경기도 군포시,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4):169~187.
- 사공영호. 1998 여름.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113~129.
- 사득환. 1997 가을.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3):187~201.
- 소영진. 1999 봄.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185~205.
- 송위진. 1998 봄. "조직의 딜레마와 대응행동: 한국노총의 '사회적 합의'(1993~1995)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32(1):113~128.
- 송위진. 1999 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치학: CDMA기술개발사업의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33(1):311~329.
- 오성호. 1999 가을.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집권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55~70.
- 오재일. 1999 여름. "일본의 혁신자치체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33(2):251~267.
- 윤건수. 1997 여름. "정당성의 논리와 중간조직의 딜레마." 《한국행정학보》 31(2):93~109.
- 윤성식. 1997 여름.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111~123.
- 이상철. 1999 겨울.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 검토: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1):181~196.

- 이상팔. 1996 여름. "위기관리체계의 지능적 실패에 의한 학습효과 분석: 삼풍백화점 사고 전·후의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2):113~127.
- 이상팔. 1998 여름. "위기관리체계에서 영역초월학습의 촉진·방해요인분석: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시 통합방위관리체계의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2):59~75.
- 이상팔·정병걸. 1999 가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동적 인상관리분석: 영광군수의 영광원전 5·6호기 허가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287~308.
- 이선우. 2000. "행정학 분야의 비계량적 연구에 관한 소고." 《정부학연구》 6(1):80~116
- 이원일. 1998 여름.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2):201~217.
- 이영철. 1999 봄. "재편의 정치와 노동의 재편: 발전적 권위주의 국가 노동정책의 원형." 《한국행정학보》 33(1):279~294.
- 이준원. 1999 겨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K시의 99년도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4):153~168.
- 최진혁. 1999 가을.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3):237~255.
- 하혜수·임도빈·채원호·김성수. 1999 여름. "일몰방식의 행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89~105.
- 한상연. 1996 여름. "지방정부 부서간의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의왕시 도시업무 관련 부서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2):129~143.
- 허만형·정윤수. 1999 봄. "복지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본 공공복지서비스의 평가: 서울시 복지사업소 복지납용 사례." 《한국행정학보》 33(1):63~79.
- Arend Lijphart.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pp.682~693.
- Gregor, A. James. 1971. *An Introduction to Metapolitics*. New York: The Press.
- Harry, Eckstein.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Strategies of Inquiry*. in Fred I. Greenstein & Nelson W. Polsby. ed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Marshall, Catherine and Gretchen B. Rossman.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arshall, Catherine. 1985. "Appropriate Criteria of Trust Worthiness and Goodness for Qualitative Research on Education Organizations." *Quality and Quantity* 19:353~373.
- Stinchcombe, Arthur L. . 1968. *Constructing Social Theories*. Harcourt, Brace & World. Inc.
- Yin, Robert K. 198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7. Scientific Inference and Case Study Methodology

Sung-Hun Kim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se the analytical errors of the prevailing case studies by applying the meta analysis and to mitigate general misunderstanding on case study methodology so that case study methods may be widely applied as an effective one in scientific inference. In this context, variou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ase study methods are presented, and the function of each method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inference is closely examined. A check list has been employed in order to analyse the methodological error of current case studies. In the conclusion, the paper reveals two implications in order to eradicate the misinterpretation that the current methods of case studies are unscientific lac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Firs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design articles after recognizing various roles that case study methods can play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inference. Second, it is needed to precisely diagnose on the design process and its result through check list.